

“ 오늘 한국에 Abraham Kuyper같은 지도자는 없는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자” 라는 칭송을 받았던 A. 카이퍼는 다방면에 천재적 머리를 가졌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학을 세계화시키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바쳤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거인이었다. 19세기 화란이 낳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 일했던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개혁가며, 정치가, 교육가, 언론인이었다. 그는 불을 토해내는 대설교가였고 자유주의 노선에선 국교를 개혁하여 화란개혁교회를 세웠고, A.R.F.정당의 당총재가 되어 하원의원, 종신 상원의원을 거쳐 수상이 되어 칼빈주의적 정치를 실현하였다.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국립대학에 대항하여 성경적, 신본주의적 칼빈 사상을 가진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로 총장직을 수행했다. 자유대학을 개교하면서 영역주권(Souveriniteit in eigen King) 사상을 제창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일간지인 ‘스탠다드’ 지를 창간하여 편집인이 되었고, 주간지 ‘헤라누드’ 지를 창간하여 45년간 편집장으로 일했다. 1862년 그의 서거때까지 한평생 223권의 크고 작은 책을 저술했다. 그중에는 신학,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등 손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다루고 있다. 그는 논리가이자 실천자로서 감성, 지성, 영성뿐 아니라 의지력, 호소력, 리더십을 한꺼번에 갖춘 걸출한 인물이었다. 카이퍼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가 꿈꾸던 것은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었고 그는 조그마한 어촌마을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장했다. 카이퍼는 논쟁가였다. 그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사수하기 위해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려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대자들을 굴복시키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카이퍼는 예술적 감성도 많이 갖고 있었다. 상상력이 풍부했고 감성적이기도 했다. 지성, 영성, 감성을 한꺼번에 소유한 보기 드문 천재로서, 시간을 쪼개어 성경 명사록을 쓰고 자유주의자들과 힘겨운 승부를 겨루어야 했다. 그의 근면성, 정열, 흔들림 없는 비전 실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투쟁을 한 카이퍼는 26세때 목사가 되었고 그의 첫 목회지에 가서 두 번째 회심을 체험하고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로 거듭나게 된다. 카이퍼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카이퍼의 회심은 그의 영적인 변화 뿐 아니라 그의 학문, 사상, 세계관 전부가 변하였다. 카이퍼는 위대한 기독교 정치가였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란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그의 신학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일반은총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 안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주(主)가 되신다 했다. 그의 정치철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을 정치 모델로 삼았고 호른반 프린스테가 주장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성경중심하나님중심 사상을 모델로 삼았다. 그가 64세때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철도 대파업 문제를 해결했고, 고등교육법안을 개정 통과시켰고 금주법과 사회보장법을 만들었다. 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교육가로서 그의 평가는 그가 살아 있을 때보다 하나님 면전(Coram Deo)에서 그가 행함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칼빈주의관 관점은 전 세계가 기독교정치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오늘의 한국에 A. 카이퍼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세우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1518호] 2016년 9월 3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Hymn	2 Deacon Kichan Yoo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3:18-4:1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In the Fear of the Lord”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백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양길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금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김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찬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망, 탕,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멜(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포,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드,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p style="text-align: center;">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p> <p style="text-align: center;">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p>
--	---

“ 하나님, 복음, 우리 ”

■ 시 19:1-14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세상 어느 것 보다 가장 고상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 두었던 자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많은 것이 좌우되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지하교회 카타콤에 숨어들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죽음도 초월하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까?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1.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에게는 먹고 즐기기 위함이 아닌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좋아서, 하나님 외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신 사랑을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죽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그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있는데 어찌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고 살아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거스틴은 “이 세상 삶에서 슬픔이 많고 살고 싶지 않는 까닭은 난다고 한다면, 이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슬픔 때도, 기쁨 때도 변함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생의 삶을 터득한 사람의 자세 일 것입니다.

2.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터득한 후,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시 19:1-6),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시 19. 7-11), 체험한 자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시:12-14).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2중 지식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1장 1항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자 우리에게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서, 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좋은 하나님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에만 집착해 있으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칼빈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한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모든 일의 제 일인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알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맺는 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려는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상급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라은성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노문환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계 21:7-8 인 도 자
 찬 송 390(444) 다 함 께
 기 도 임우택 집사
 성 경 계15: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마지막 재앙의 시작" ... 설 교 자
 * 찬 송 357(39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앞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62: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8(사순절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3(5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약 2:18-26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네 믿음을 보이라"..... 이승하 목사
 * 찬 송 Hymn39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이안순 권사
 성 경 ... 삼상 18:30-19:17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요단이 대를 삼아 흘려내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민박수강김복화2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매 주일 오후 4시30분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101호에서 모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사-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사-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사-11시, 오후 1사-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봉배(통증의학), 김동건(치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김관섭(영성의학)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4. 이승하 목사 소개
 송실대 철학과(B.A.)
 장신대 신대원(M.Div.)
 연세대 교육대학원 (M.Ed.)
 미국 맥코믹신학대 목회학박사(D.Min.)
 장신대 명예신학박사(D.D.)
 보성여고 교목
 보광중앙교회 담임
 해방교회 원로목사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1,035명	269명	362명	1,666명	156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3/1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 11일	헌금	21,554,200	
"	특별예배비		1,100,000
	찬양운영비		1,000,000
"	구 제 비		300,000
	교통통신비		109,530
	복리후생비		181,400
	수도광열비		125,000
"	차량유지비		309,754
	소모품비		1,309,600
	수선유지비		3,150,000
	식당운영비		134,000
"	합 계	21,554,200	7,719,284